"고향에서 열리는 세계대회, 단체전 우승 정조준"



최미선(왼쪽)과 안산이 지난 14일 2022광주양궁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광주시 서구 염주종합체육관 체육 센터에서 훈련하고 있다. 〈광주시양궁협회 제공〉

광주양궁월드컵 내일 개막…광주여대 안산·순천시청 최미선의 각오

처음이라는 마음 자세로 준비 결승전 모교 광주여대서 열려 바람의 강도 등 익숙하고 편안 2000명 관중 앞 최선 다할 것

"고향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대회인 만큼 최고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태극마크를 달고 2022광주양궁월드컵에 출전하 는 최미선(순천시청)과 안산(광주여대)은 지난 14일 광주 서구 염주종합체육관 체육센터(구 서향 순양궁장)에 마련된 연습장에서 기자들을 만났다.

최미선과 안산은 "광주국제양궁장은 오랜 기간 많은 경기를 치른 장소라 익숙하고 편안하다. 바람 의 강도 등 적응도 빨라 부담 없이 경기에 나설 것 같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두 선수는 양궁월드컵에 대한 좋은 추억을 발판 삼아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결과를 거둔다는 각오

실제 2015년 시리즈 왕중왕전에서 개인전 우승

을 차지한 최미선은 이듬해 두 차례 양궁월드컵에 서 3관왕을 차지했다. 이어 왕중왕전에 출전해 개 인전 준우승을 차지하며 선수로서 최고의 시절을

안산도 시니어 데뷔무대인 2019년 베를린 양궁 월드컵에서 개인전 우승을 차지하며 이름을 알렸 다.

최미선과 안산의 목표는 단체전 우승이다. 물론 한솥밥 대결이 예상되는 개인전 메달에 대한 욕심 도 감추지 않았다.

최미선과 안산은 "국가대표에 선발된 후 진천선 수촌에서 단체전 훈련에 집중했다. 개인들의 역량 을 극대화해 원팀으로서 호흡을 맞추는 다양한 훈 련을 계속했다. 열심히 준비한만큼 기대도 크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오는 9월 열릴 예정이던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연기된 탓에 아쉬움도 있다. 올림픽 메달 따 기보다 힘들다던 3차례의 국가대표선발전을 뚫고 태극마크를 달았기 때문이다.

최미선과 안산은 "경기 외적인 부분에 연연하지 않고 마음을 비우며 태극마크 본연의 임무에 최선 을 다하고 싶다. 당장 이번 대회부터 한국양궁을 대

표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경기에 나서겠다"며 "다시 처음이라는 마음 자세로 차근차근 준비를 잘해 내 년에도 국가대표가 될 수 있도록 매 순간 열심히 하

특히 이번 대회 결승전은 코로나시대 처음으로 2000여 명의 관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두 선수의 모교인 광주여대에서 열린다.

최근에는 광주시가 양궁 스포츠 관광자원화를 위 한 첫 걸음으로 광주여대에 양궁스타 포토존을 조 성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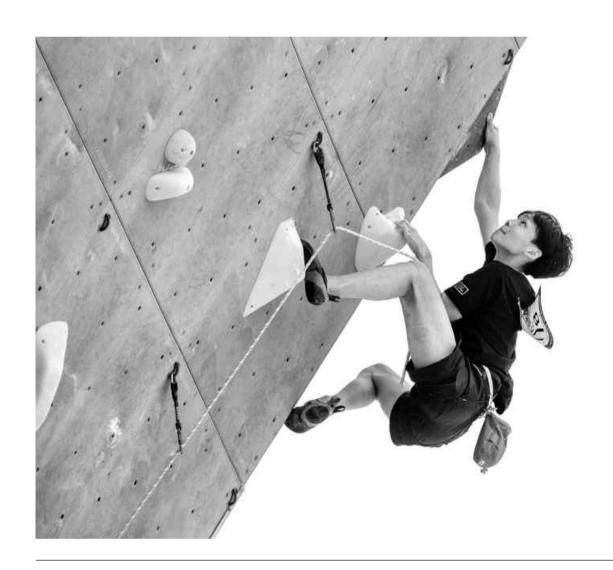
광주여대는 국내 최초 2012 런던 기보배, 2016 리우 최미선, 2021 도쿄 안산 등 3회 연속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배출한 세계 최강 한국 여자 양궁 의 산실이다.

기보배와 최미선, 안산은 모교 명예의 전당에 이 름을 올렸다.

최미선은 "양궁스타 포토존에 이름을 올려 자부 심과 함께 책임감을 느낀다. 3년 만에 태극마크를 달고 사대에 선 만큼 예전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고 말했다.

안산은 "재학생으로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려 뿌듯하다. 제가 마지막이 아닌 더 훌륭한 후배들이 나와 광주여대의 빛나는 전통을 이어주길 희망한 다"고 덧붙였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저 높은 곳을 향하여

14일 광주 서구 상무인공암벽장에서 열린 제32회 광주시 전국 스포츠클 라이밍대회에서 남자일반부 리드 종 목에 참가한 김도현(풍암고)선수가 경사도가 심한 루트를 오르고 있다. 합계 점수 3.46으로 4위로 예선을 통과한 김도현은 결승에서 37m 끝 지점까지 완주해 2위를 기록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동성중, 춘계 중학교 야구대회 우승



동성중이 지난 13일 순창에서 열린 2022년춘계 중학교 야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뒤 기념 촬영을 하 고 있다. 〈광주시야구소프트협회 제공〉

동성중이 2022년 춘계 중학교 야구대회에서 우

동성중은 지난 13일 순창팔덕다목적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결승에서 진흥중을 6-4로 꺾고 우승팀

무등BC와의 대회 첫 경기에서 3-6으로 패했던 동성중은 GJ스타즈BC와의 두 번째 경기에서 12

-3, 7회 콜드게임 승을 거뒀다. 이어 충장BC와의 준결승에서 8-7으로 승리하 면서 결승에 진출했다.

이번 대회는 리그전으로 전개됐고 무등BC, 동 성중, GJ스타즈BC가 A조 진흥중, 충장BC, 광주 BC가 B조에서 대결을 벌였다.

한편 2022년 춘계 초등학교 야구대회는 오는 6 월 4일부터 첨단야구장에서 진행된다.

◇대회 시상 내역

▲최우수선수상: 김근화(동성중) ▲우수투수 상: 김동혁(동성중) ▲타격상: 서지훈(6타수 5 안타·0.833·진흥중) ▲최다도루상: 박예찬(4개· 진흥중) ▲최다타점상: 박준성(11타점·진흥중) ▲홈런상: 임서진(2개·진흥중) ▲감투상: 김태 현(진흥중) ▲미기상: 이도훈(동성중) ▲감독 상: 강대성 감독(동성중) ▲지도상: 김중석 부장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여자 배드민턴, 중국 넘어 세계단체선수권 제패

안세영 등 맹활약…12년만에 우승

한국 배드민턴 여자 대표팀이 12년 만에 세계단 체배드민턴선수권대회 우승컵을 차지했다.

대표팀은 14일(한국시간) 태국 방콕에서 열린 2022 세계여자단체배드민턴선수권대회 결승에서 중국을 3-2로 꺾고 우승했다.

이날 승리로 한국 여자 배드민턴은 2010년 대회 우승 후 12년 만에 우승컵을 안았다.

이 대회 결승에서만 8번째이자 6년 만에 다시 만난 중국을 상대로 일진일퇴의 팽팽한 승부를 펼 쳤다.

단식으로 치러진 1경기에서 여자 배드민턴 간판

안세영(삼성생명)이 천위페이와 3세트 접전 끝에 1-2(21-17 15-21 20-22)로 패하면서 중국이 앞 서 나갔다.

하지만 2경기에 나선 복식 이소희-신승찬(이상 인천국제공항)이 천칭천-자이판에 2-1(12-21 21-18 21-18)로 역전승을 거두며 승부의 균형을 맞췄다.

3경기에서 김가은(삼성생명)이 허빙자오에게 0-2(12-21 13-21)로 패하면서 벼랑 끝에 몰린 대표팀은 4경기에 복식 김혜정(삼성생명)-공희 용(전북은행)을 내세워 반격에 나섰다.

김혜정-공희용이 황둥핑-리원메이를 2-0(22-20 21-17) 완파하면서 극적으로 2-2 균형을 맞춘

대표팀은 마지막 5경기에 단식 심유진(인천국제 공항)을 출전시켰다.

심유진은 왕즈이와 그야말로 혈전을 벌였다.

심유진이 7번의 듀스 접전 끝에 28-26으로 1세 트를 따냈지만, 2세트를 18-21로 내주면서 승부 는 마지막 세트로 이어졌다.

3세트는 심유진의 독무대였다.

1.2세트 접전으로 체력이 떨어진 왕즈이는 심유 진의 변칙 공격에 속수무책이었다.

결국 심유진이 21-8로 3세트를 따내며 한국이 이 대회에서 12차례 우승한 중국을 꺾고 12년 만 에 왕좌에 올랐다.

세계여자단체배드민턴선수권대회와 세계남자 단체배드민턴선수권대회는 2년마다 열리는 단체 전으로, 각각 우버컵과 토마스컵으로 불린다.

전남장애인체전 폐막…여수시 종합우승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순천시에서 치러진 제30회 전남도장애인체육대 회가 폐막했다.

여수시는 순천시와 종합우승을 놓고 열띤 경쟁을 펼친 끝에 4만5728점을 획득해 종합우승을 차지, 제27회 대회에 이어 5연패의 위업을 달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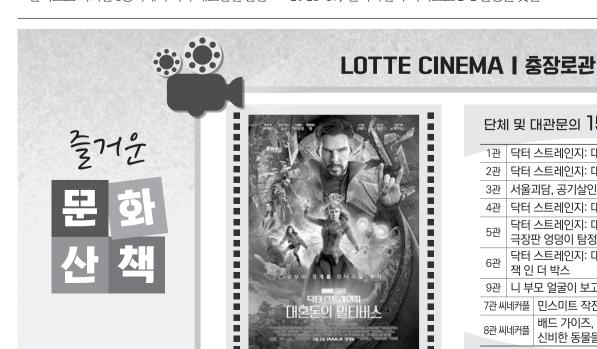
최우수선수상은 육상 필드 창던지기에서 비공 식 한국신기록 33m 55를 기록한 순천 출신 하성 환(시각·42세)이 차지했다.

장려상은 신안군, 모범선수단상은 완도군, 성취 상은 순천시가 차치했다. 입장상 1위는 순천시, 2 위는 강진군, 3위는 장흥군이었다.

이번 대회에는 전남 22개 시·군 1만5000명의 선 수단이 참가해 지난 11일부터 3일간 일정으로 치

전남도장애인체육회 남백원 상임부회장은 "대 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노력한 순천시 관계자와 시민들께 감사하다"면서 "내년 완도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도민과 장애체육인들이 다시 한번 노 력하자"고 당부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

2관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

3관 서울괴담, 공기살인 4관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

극장판 엉덩이 탐정: 수플레 섬의 비밀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 잭 인 더 박스

9관 니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

7관씨네커플 민스미트 작전, 어부바 배드 가이즈, 잭 인 더 박스,

신비한 동물들과 덤블도어의 비밀



광주시립교향악단 오티움 콘서트 Ⅲ Brahms's

일시: 2022.06.03.(금) 장소: 빛고을시민문화관 문의: 062-524-5086

광주국악상설공연 일시: 2022.05.03.(화)~31.(화)

매주 화요일 ~ 토요일

장소 : 광주 공연마루 문의: 062-613-8379, 8372

